

게리 예이츠 박사, 성서 제12권, 세션 5, 아모스, 아시리아 위기를 배경으로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소선지서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앗수르 위기를 배경으로 한 아모스 강의 5입니다.

우리는 소선지서 연구의 다섯 번째 세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개 자료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선지서의 각 책을 공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모스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모스로 시작하려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난 두 수업에서 우리는 12권에 대해 어떻게 이 12권에 문학적 통일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시대보다 적어도 2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인식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별 책을 볼 때, 정경적인 순서를 따르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연대순을 따르게 됩니다. 당신은 열두 권의 책이 본질적으로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적 표기와 표제가 있는 모든 책은 앗시리아 시대에서 바빌로니아 시대, 포로 이후 시대로 넘어가는 기본 순서와 진행을 따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제별 배열도 있습니다. 회개와 배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주제를 소개하기 위해 호세아서를 맨 앞에 두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연대순으로 볼 때, 이 선지자들 중 북쪽 왕국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사역한 사람은 선지자 아모스였습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구를 시작하려는 곳입니다.

여러 면에서 아모스는 전형적인 선지자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이 이 선지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과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12서를 살펴보면서

8세기에 한 무리의 앓수르 선지자들이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과 남쪽의 유다 백성에게 이 앓수르의 위기에 대해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북방 선지자에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포함될 것입니다. 요나는 또한 북쪽 왕국의 선지자이며 결국 니느웨라는 도시 자체에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미가와 이사야는 8세기에 남쪽에서 유다 왕국을 전파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12장에는 바벨론의 위기를 다루는 선지자들의 그룹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명의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에 설교하고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소선지서 사역의 연대순 시작인 아모스부터 시작하여 앓수르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왜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정적인 시기였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며 그들의 사명과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8세기에 고전 선지자들을 일으키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직면한 국가적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신명기 18장 5절, 18-1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개 영상에서 그 구절을 보았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할 일련의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형성 단계에서 행했던 것과 동일한 역할을 이스라엘을 위해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나단,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직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주로 왕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8세기에 선지자들의 사역과 히브리어 정경에 메시지가 기록된 이러한 기록 선지자들이 등장한 이유는 이제 국가적 위기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들에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자들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으며 이 끔찍한 국가적 위기가 오기 전에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사역을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앗수르 국가가 강력한 제국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 서방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모든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8세기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이 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앗시리아와의 이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사건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기원전 853년에 우리는 아합 왕과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왕 연합이 아시리아 군대와 싸웠고 기본적으로 카르카르 전투에서 그들을 정체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시점에서 앗수르는 서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이 전투에 참여한 앗수르 왕들은 큰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시리아, 팔레스타인까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능성은 아합과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 연합의 다른 왕들이 이 시점에서 앗시리아를 저항하고 이스라엘이 추가 앗시리아 침략의 표적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 흥미로운 점은 거기에서 아합이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으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바알 숭배를 조장했던 사악한 여자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서는 카르카르에서의 이 중요한 성취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열왕기의 저자는 그에게 어떤 공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열왕기의 초점은 단순히 역사적인 것보다 더 신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앗수르 군대를 이겨낸 이 위대한 군사적 성취는 거기에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기억조차 나지 않지만 아시리아 비문과 아시리아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853년에 아합이 이 전투에 전차와 상당수의 군인을 데려왔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왕 연합이 아시리아에 맞서도록 도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년 후인 BC 841년에 우리는 아합의 후계자 예후가 강제로 앗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검은 오벨리스크에서 성경 외의 가장 흥미로운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는 예후 왕이 아시리아 왕 앞에 절하는 그림과 그가 이 공물을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가져온다는 비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악함과 배교와 죄와 반역으로 인해 일어나기 시작한 일, 신명기 28장의 언약의 저주가 이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백성을 처벌하기 위해 아시리아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뺏머리에 총을 쏘아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세기,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후에 아합과 예후의 시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을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그들의 진로를 바꾸고, 그들의 길을 바꾸고, 처음에 그들을 위해 계획하신 방식으로 완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시리아 왕국은 장기간의 쇠퇴기에 들어갔습니다. 약 50~75년 동안 아시리아 왕국은 내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재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에 더 가까운 다른 나라들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인, 아시리아 왕, 아시리아 군대는 본국에 가까운 문제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북 이스라엘 왕국에 이 왕들 중 가장 길고 가장 성공적인 통치를 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14장에서 여로보암이 분열된 군주제 시대에 경험했던 모든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국경을 실제로 확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읽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은 가까운 이웃인 아람 사람이나 시리아 사람과도 분쟁을 벌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경계와 국경을 확장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의 뒷부분에서도 공부하게 될 선지자 요나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확장하도록 허락하실 것이라고 알린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14장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국가적인 부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배교를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40년 넘게 통치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경건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열왕기에서 그가 아마도 이스라엘의 가장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왕, 이스라엘을 가장 큰 번영의 시기로 이끈 왕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왕에 대해 훨씬 더 확장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다시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4장이 그에 관해 우리에게 언급할 모든 내용은 몇 구절에 불과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봇의 아들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아합과 마찬가지로 그의 정치적 성취도, 이스라엘이 이 시대에 누리던 번영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는 사실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그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지었다는 그 말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신 것, 앗수르로부터 일시적으로 유예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의 저주에 관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엄격한 보응 원칙에 따라 그의 백성을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에도 똑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열왕기서에서 종종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등불을 남겨 두셨습니다. 다윗의 왕위와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따라서 여로보암 시대에 열왕기하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점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주목하십시오.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감찰하시고 이스라엘의 고난이 극심함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좋아요.

시리아-팔레스타인에 대한 아시리아 침공의 초기 영향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리아 사람들과 오랜 기간 동안 겪어온 갈등, 패배, 영토 상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어려운 생활환경.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히 극심함을 보셨느니라.

매인 자나 자유인이나 남은 자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었음이라.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27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구해 냈습니다. 그러므로 8세기 앗시리아 위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또 다른 예를 보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백성들에게 유예를 주셨고, 이스라엘은 이전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번영과 축복과 부의 이 놀라운 시간을 누렸습니다.

남쪽에 있는 남쪽 유다 왕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왕국을 축복하셨습니다. 8세기 초중반 유다에는 웃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통치했습니다. 유다는 큰 번영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웃시야가 죽던 해에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백성들이 이 길고 성공적인 왕의 통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의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를 그들의 은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 유다 왕국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시간을 주셨지만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8세기에 고전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전에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제 그 번영과 모든 축복, 이스라엘의 국경과 국경의 확장, 요나가 백성들에게 주었던 긍정적인 예언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 그 축복이 합당치 않은 일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었는가? 그리고 구약의 여러 시대에 이스라엘이 큰 번영을 경험할 때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도 알 만큼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뒤로 미루고, 그분을 잊어버리고, 주님 대신에 그들의 왕들과 인간 지도자들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그들의 부, 번영, 위로의 초점이 되는 대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초점이 되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모세는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매우 지혜롭게 일러줍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삼가라. 너희는 땅의 모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집을 누리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성읍들을 너희를 위하여 마련하셨느니라.

당신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 삶에서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때마다, 편안할 때마다 깨닫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도록 이끄는 대신, 배은망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나 소유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미국인으로서 누려온 물질적 번영과 서구 일반 사람들의 번영이 종종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의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그들이 이 큰 번영을 누렸던 이 시기의 끝에 있습니다.

아래 유다에서는 웃시야의 통치 기간 동안 유사한 축복과 번영을 경험했습니다. 남방의 아모스 같은 선지자나 이사야, 미가 같은 선지자에게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당신이 누려온 이 번영이 이제 곧 끝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좋은 때, 그리고 국가적 축복과 번영의 시기였던 이 때를 누리면서, 재난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통치 이후 8세기 중반에 그리고 여로보암 이후에 오는 모든 왕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의 왕조는 그 시간이 지나면 곧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모든 왕은 약하고 무력할 것이며, 그들은 결국 아시리아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현장에 나가서 곧 다가올 심판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나는 사람들이 이 전례 없는 번영의 시대를 경험하면서, 아모스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위대한 국가적 축복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벌하실까요? 그러나 그것은 고전 선지자들의 일이었습니다. 메시지의 긴급성, 메시지의 강도, 때로는 메시지의 분노, 극단적인 수사,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진노의 급류 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을 선지자들이 깨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다가올 때입니다. 폴 길크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배교가 아시리아 제국주의의 촉매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앗시리아가 8세기 중반에 지배적인 제국이 된 이유를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 이유, 신학적 설명, 구약성경이 이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제국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제국주의적인 계획과 욕망을 가지고 앗수르 왕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유다의 언약 불성실을 벌하실 것입니다. 745년은 이 모든 논의에서 중요한 해입니다.

745년에 아시리아에 새로운 정력적인 통치자가 등장했는데 그의 이름은 티글라트-필레세르 3세였습니다. 티글라트필레세르 3세는 125년 동안 지속된 신아시리아 제국의 창시자가 될 것입니다. 디글랏빌레셀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정력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는 효과적인 관리자였습니다. 아시리아인의 특징 중 하나는 군대의 효과성, 힘, 위력뿐 아니라 아시리아 지도자들이 그 군대를 사용하는 행정 기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로운 활력 넘치는 통치자와 그분이 세우신 제국을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징벌, 즉 기원전 8세기에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0장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앗수르 제국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구절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앗수르야 내 진노의 지팡이요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나의 분노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앗수르 군대가 티글라트-빌레셀 3세가 만든 강력한 군사 기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궁극적으로 나를 징벌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Tiglath-Pileser는 신앗시리아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는 9세기에 아시리아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서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내부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앗시리아는 강하고, 강하고, 또 강합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이동시키기 시작할 것이며 시리아-팔레스타인에서 이러한 캠페인을 수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은 디글랏 빌레셀이 그 자신의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위대한 왕이 아닙니다.

나는 이 이교도 왕과 심지어 이 이교도 군대에 대해서도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궁극적으로 나의 도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읽으면 얻을 수 있는 이점 중 하나는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미국 대통령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그의 힘은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행하기 위해 땅의 왕들을 사용하시고 통제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거대한 장기판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간 통치자들과 인간 지도자들과 정부들과 군대들과 왕국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행하는 일들, 그들이 저지르는 사악함, 그들이 책임지는 악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과 죄와 반역 가운데서도, 때로는 나라와 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주먹을 흔드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목적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기원전 8세기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통제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문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위기, 도덕적 위기, 경제 위기 등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부나 군대, 그것이 궁극적인 해답이라고 가장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개인들, 심지어 그 권력조차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앗수르야 그들은 강대한 나라요 강대한 제국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단지 내 뜻을 행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손에 있는 지팡이일 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위기 동안 선지자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 본질적으로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과 예레미야 29장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은 나의 종이라 말할 것이다.

그렇다고 느부갓네살이 여호와를 알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정부와 군대가 행한 모든 일을 승인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그에 대해 심판을 받고 책임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의미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0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망치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께서 땅의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망치입니다.

이사야가 여기서 앗수르는 내 진노의 지팡이요 내 손의 지팡이라고 말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여호와께서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치러 바벨론 군대를 이끄시는 전사이심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그리고 예레미야 27장에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손에 세상 왕국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느부갓네살에게 땅에 있는 동물들을 다스리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수사법은 본질적으로 느부갓네살을 새로운 아담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이교 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또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여 땅의 나라들을 벌하신 후에, 느부갓네살이 패배시키고 정복하고 멸망시킨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후에 또한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위기의 시기를 겪으면서, 8세기 앗수르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신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늘 있었습니다. 궁극적인 주권자이신 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 군대에게 패하도록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앗수르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보다 강하다는 뜻입니까? 6세기와 7세기에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하기 시작하면서 바벨론의 신들이 유다의 신들보다 더 위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패배한 걸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이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주고 싶어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자신의 주권적인 목적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도 바사 왕 고레스에 대하여 이 과정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사 궁극적으로 바벨론을 대신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레스가 나의 목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심지어 고레스는 나의 기름부음받은 자, 히브리어 메시아흐, 우리 말 메시아의 전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고레스는 나의 목자요 메시아이다. 다시 말하지만,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도 아니고, 고레스가 유일신론자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비문과 사물을 통해 그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여호와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과 같이 디글랏 빌레셀과

앗수르를 사용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고레스와 바사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십니다. 8세기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제국주의 세력의 손아귀에 있는 국가적 재앙의 시대에 곧 들어서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그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선지자들을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국제적인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국제적인 테러리즘에 대해 모두 알고 계시며, 때때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악한 사람들과 악한 나라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아시리아 위기가 8세기에 시작되자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정치적 이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절 이후에 “앗수르는 내 진노의 지팡이요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진노라 내가 그를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게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심지어 이스라엘과 유다가 신이 없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다른 곳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앗수르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치게 하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훗날 앗수르 군대, 디글랏 빌레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디글랏빌레셀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온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로 온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왕들은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욕망과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앗수르인들은 성스러운 일을 하기는커녕 서방으로 이주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같은 민족들을 예속시키기 시작하면서 실제로는 끔찍한 만행과 폭력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점을 인정합니다.

그는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7절의 이 구절에서 앓수르 왕에 대해 이렇게 말하지만, 앓수르 왕은 그렇게 할 의도가 없습니다. 즉, 그는 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이같은 생각이 없으나 그 마음에는 여러 나라를 멸하며 멸절할 생각이 있느니라.

앓수르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고 이르기를 이 나라들과 이 나라들이 내가 이긴 다른 나라들과 무엇이 다르냐 하리라 사마리아와 유다의 우상과 형상이 다른 이방 민족의 우상과 형상과 신보다 더 큰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모두 정복한 것처럼 그들을 정복할 것입니다. 후에 예루살렘 성이 남왕국 산헤립에게 포위당할 때에 앓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 자손에게 와서 이르기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며 너희 지도자들이 너희에게 고하는 말을 듣지 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신은 당신을 구출하는 데 있어서 다른 민족의 모든 신보다 더 효과적이지도 않고 앞으로 더 효과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왕들의 신성 모독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먹을 흔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하는 인간 통치자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력적이고 끔찍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사용하여 내 목적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그들의 폭력과 악행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가 장기판을 주관하고 있지만 디글랏 빌레셀과 산헤립과 이 모든 앓수르 왕들이 행하는 도덕적 악에는 하나님께서 참여하지 않으십니다. 아시리아 군대와 아시리아 국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그것이 여러 면에서 폭력, 유혈, 위협 위에 세워진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디글랏 빌레셀의 군대가 퍼지기 시작하고 그가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자, 그들이 이 일을 행한 방법 중 하나는 군사력과 폭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리아 비문을 볼 때, 아시리아 기록을 볼 때, 아시리아 예술을 볼 때, 우리는 폭력, 유혈 사태, 군사적 정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왕인 산헤립 왕은 자신의 적들과 군사적 정복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찐 수송아지처럼 재빨리 그들을 베어넘겨 보호해 주었습니다. 나는 양처럼 그들의 목을 베었습니다.

나는 실을 자르듯이 그들의 생명을 끊는다. 그러면 아시리아 왕들이 미화한 폭력에 대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7세기의 아슈르바니팔은 그의 비문 중 하나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의 피로 나는 산을 양털처럼 붉게 물들였고 나머지는 계곡과 산의 급류를 삼켰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포로와 재물을 빼앗아갔습니다. 나는 그들의 전사들의 머리를 자르고 그것으로 그들의 도시 앞에 탑을 세웠습니다. 나는 그들의 사춘기 소년 소녀들을 불태웠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전반에 걸쳐 전쟁의 공포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반대하는지 생각해 볼 때, 아시리아인들은 그것을 전략의 일부로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같은 작은 나라들을 위협하여 정복. 아시리아 미술을 보면 그림도 보이고, 잘린 머리들이 성벽 바깥에 쌓여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는 시체가 절단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도시가 정복된 후 사람들이 막대기에 찢려 죽는 사진을 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유대인들이 앗수르에게 패배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리아의 다양한 잔학 행위를 보여주는 특별한 아시리아 예술 작품이 있습니다.

한 패널에서 우리는 아시리아 군인이 엘람 전쟁 포로를 곤봉으로 때려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아시리아 군인들이 엘람 전쟁 포로의 가죽을 벗기고 그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 고문의 형태로 그의 피부를 벗겨내는 것을 봅니다. 아시리아 군인들이 다른 죄수의 입에 손을 넣어 그의 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고대 근동의 모든 군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없지만 아시리아 수사학의 일부로 특히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산헤립은 유다 땅 라기스를 함락시키고 자기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라기스를 정복한 그림으로 벽을 장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적 성취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처럼 생각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8세기에 이 선지자들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여러 면에서 비열한 사람들을 취하고 계십니다. 이런 끔찍한 짓을 다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백성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원칙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거두고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더 효과적인 이미지를 원한다면 8세기에 이스라엘과 유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충실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그 죄의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는 바람을 심었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사악함으로, 군사 전략으로, 동맹에 대한 정치적 참여로 그렇게 하였느니라. 당신은 회오리바람을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오리바람은 아시리아 군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형벌을 행할 예정이었습니다.

8세기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순종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Tiglath-Pileser는 그의 제국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의 군대는 서쪽으로 이동할 것이며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들의 권위와 영향력 아래로 데려갈 것입니다.

722-721년이 되면, 그 해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멸망될 것입니다. 북쪽 수도 사마리아는 아시리아 왕들에게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북왕국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북쪽 열 지파는 멸망하고 앗수르는 앗수르의 속주가 될 것입니다. 남쪽 왕국 유다는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치하의 남쪽 유다 왕국도 앗수르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8세기 말에 남쪽으로 이주했습니다. 아시리아 기록에는 그들이 유다의 46개 성읍을 함락시키고 유다 왕 히스기야를 새장에 가두듯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히스기야의 믿음으로 인해,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유다는 앞으로 140년 동안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앗시리아 군대와 앗시리아 침략의 영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의 임무는 이 위기에 대해 사람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기원전 760~750년에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끝나는 때입니다.

이렇게 큰 번영이 있었습니다.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모스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모스의 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시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이 특별한 시점에 아모스가 관여한 것에 대해 중요한 서너 가지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모스서의 처음 두 구절을 읽고 역사적 배경과 배경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위기 가운데 아모스는 어디에 속합니까? 아모스 1장 1~2절은 유다 왕 웃시야 시대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본 말씀이라 이스라엘 왕이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따라서 이 더 큰 앗수르의 위기 속에서 아모스의 사역의 시기에 관해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모스의 사역 시기는 일반적으로 기원전 760년에서 750년 사이로 추정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시작할 선지자들의 시작에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사역을 수행하려면 아직 30~40년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축복과 번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이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아모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사역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바로 그것이다.

아모스가 종종 이 판단을 끔찍한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 심각성이 이 사람들을 깨울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상 이 특별한 시기에 아모스의 사역과 메시지의 심각성이 그의 부르심의 상황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우리가 1절을 읽을 때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드고아 목자들 가운데 있는 아모스의 말입니다. 드고아는 남왕국 유다에 있는 성읍이나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아모스를 부르셔서 남쪽 왕국 유다를 떠나 북쪽 왕국 이스라엘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좋아요. 이 메시지는 아모스가 그의 고향 유다를 떠나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 가서 이 메시지를 선포할 만큼 심각합니다. 이는 북 왕국의 선지자들의 지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할 신실한 선지자를 찾으신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남쪽 왕국에서 누군가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남쪽과 북쪽 사이의 국경을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방인이자 외국인으로서 미움받는 사람들의 일부로서 아모스는 자신의 메시지를 북쪽으로 가져가 그곳에서 전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선지자가 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 직업과 삶의 상황에서 아모스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모스 7장 14절과 15절에서 아모스가 한 진술에서 아모스의 부르심에 대한 또 다른 내용과 이에 대한 추가 진술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모스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한 후에 북방 제사장 중 한 사람인 아마샤가 있었습니다. , 그리고 우리는 그의 사역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몇 년이 지났을 수도 있지만 결국 아마샤는 우리에게 전파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유다로 돌아가서 왕의 성소를 대적하는 말을 그치라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오직 목자와 뽕나무 재배자였을 뿐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양 떼를 따르던 나를 데려가시고 나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독특한 상황에서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말했을 때 한 말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었고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었느냐? 어떤 사람들은 아모스가 북쪽 왕국의 대변인 중 한 사람인 선지자라기보다는 유다에서 가졌던 선지자의 유형인 선견자라는 사실을 구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모스를 받아들여 나는 이단의 선지자도, 국가의 선지자도, 공식적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것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이해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아모스의 소명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닌 독특한 상황에서 그는 목동입니다. 그는 돌무화과나무를 심는 사람입니다. 그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그 일에서 멀리 보내십니다. 이 메시지의 긴급성은 주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로서 저는 학생이었거나, 정치, 체육, 법률 업무, 사업 등 모든 종류의 직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가 가기를 원하며, 나는 너희가 사람을 위해 설교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아모스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부르심을 받은 상황은 그가 하나님에 의해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메시지의 심각성을 반영합니다. 아모스의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모스가 목동이고 돌무화과 재배자였으며 농사 등의 일을 했다고 말할 때, 나는 종종 사람들이 아모스를 시골 농부 또는 시골 설교자로 묘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골 설교자를 부르셔서 북쪽 왕국.

사실 아모스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본문은 아마도 더 많은 것을 암시할 것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아모스를 목자로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는 목자를 뜻하는 일반적인 히브리어 단어가 아닙니다. 대신 noqad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노카드라는 단어는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모압 왕 메사를 묘사하면서 그가 목자였다고 말한 유일한 다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시사하는 바는 아모스는 단지 가난한 시골 설교자,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광범위한 토지를 소유하고 수많은 가축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목동이자 왕과 동등한 가축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바쁜 생활 가운데, 이 모든 부 가운데서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북왕국에 가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실 만큼 심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모스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부르심의 상황을 전한 것처럼, 그것이 아모스가 그들에게 선포하러 온 메시지의 심각성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아모스가 설교한 것처럼 아마샤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떠나세요. 아모스의 부르심과 그 시기, 그리고 그것이 앗수르의 위기에 어떻게 들어맞는가에 대한 네 번째 사실은 우리가 아모스 1장 1절에서 보는 것과 아모스의 사역의 여파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그가 유다 왕 웃시야 시대와 여로보암 시대에 번영하고 부유한 왕들 모두에게 전파했으나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모스 사역의 구체적인 목적과 의도와 목적이 다가올 심판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고, 아모스가 그들에게 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2년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닝콜이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뱃머리를 가로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쏜 또 다른 사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부수적인 세부 사항이 1절에 언급되어 이것이 아모스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확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더 큰 심판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그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지진을 보내셨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아모스가 말하는 지진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하솔 시에서는 기원전 8세기 하솔 시에서 발생한 성벽 손상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이 Stratus 6에서 발견되어 이 지진의 심각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의 후반부, 소선지서의 끝 부분에 스가랴 14장 5절에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날이라 산 골짜기가 아살까지 이를 것임이로다

그리고 너희는 유다 왕 웃시야 시대에 지진을 피해 도망했던 것처럼 도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진은 포로기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끝난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것을 기억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는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것은 아시리아 위기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진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확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을 사역하도록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메시지가 인기가 없을 때에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을 때에도 이를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부르심에 대한 신실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선지서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앗수르 위기를 배경으로 한 아모스 강의 5입니다.